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게 듣는다 _ 미술

야! 반갑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ulture 'art

30년 이상을 지속해온 독임제의 관 중심체제에서 민간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바뀌는 데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흥분이,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맞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산더미 같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밋빛 앞날을 전망하기 위해 몇 가지 공통적인 과제들을 놓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미술
- (사)민족미술인협회 대표 및 이사 (89-03)
- (사)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및 지도위원 (96-현재)
- 문화연대 공동대표 및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 화가,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현기영 원장 체제가 출발하면서 시작된 위원회로의 전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제 막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다. 반갑다. 그러나 막상 나 자신이 위원이 되고 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떨리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30년 이상을 지속해온 독임제의 관 중심 체제에서 민간인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바뀌는 데에 대한 기대와 설렘과 흥분이, 또 한편으로는 민간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맞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산더미 같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우선 예술위원회의 장밋빛 앞날을 전망하기 위해 몇 가지 공통적인 과제들을 놓고 걱정부터 해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

먼저 예술위원회가 국가위원회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산하의 위원회로 출범하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잘못하다간 독임제의 문예진흥원 시절과 별 차이 없이 문화부의 하부 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가 그의 설립 목적대로 민간 자율 기관으로서 성격과 역할을 부여하고 문화부와의 관계에서 그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완전히 위원들의 몫이다. 그 만큼 위원들의 상호 협조체제에 따른 역할과 임무는 막중하다. 위원들의 협조체제만 잘 구축된다면 이 위원회가 문화부 산하에서 국가위원회로 위상을 높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문화예술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먼저 위원회 구성원들인 위원들의 현재 문화예술지형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알려진 대로 2003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또한, 이 위원회로의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후로 통과가 한차례 무산되면서 그 과정 중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위원회로의 전환의 의미와 문화예술의 현 상황, 그 중에서도 창작환경의 열악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어느 장르나 분야, 작품의 경향에 관계없이 기초예술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공통된 인식이다. 또한 대중매체와 정보통신매체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지형

의 변화와 기초예술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다. 이 위기의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문예진흥원체제에서 그대로 승계하기보다 위원회의 성격, 방향, 구조를 재설계 해야 한다.

조직개편

독립제인 문예진흥원 체제에서 민간 합의회 위원회로의 전환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이다. 문예진흥원 시대는 원장, 사무총장 라인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거의 형식적인 결정권만을 행사했다. 또한 사무처도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지원 조직 구도로서 기능적으로만 편제되어 있었다. 이러한 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라인이 이제부터는 민간 자율 조직인 위원회, 즉 위원들이 구성하는 장르별 위원회와 기능별위원회의 수평적인 합의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처는 이러한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아직도 사무처에서 준비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문예진흥원 시절의 원장 사무총장의 수직 라인에 지금은 당연히 중심에 놓여야 될 각 장르별, 기능별 소위원회는 옛날 이사회의 자리에 어중간하게 놓여 있다. 어쨌든 조직편제에서 이 소위원회가 어디 놓이느냐에 따라 위원회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위원회 조직구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위원회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운영이 당연히 전체 예술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속한 시각예술소위원회는 미술 분야의 지원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문예진흥원 시절에는 미술 분야 전 문위원들과 이사들 가운데서 사무처에서 적당히 자문을 구해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사무총장이나 원장이 문학 쪽이니 당연히 정책결정에서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의 성공여부는 이 소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의 운영의 성공은 소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달려 있다. 그야말로 개혁 지향적인 인적구성 여부에 따라 소위원회의 성공여부도 판기를 날 전망이다. 덧붙여 소위원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위원회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말하자면 부서권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장 실태조사와 지원 시스템의 재구축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은 알려진 대로 소액다건식의 '기금분배' 사업이 위주였다. 확보된 기금을 가능한 잠음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 주종이었다. 관 위주의 정책이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수동적인 '분배' 사업으로부터 벗어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예술현장 실태와 문화예술향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재구축 해야 한다.

몇 가지 앞으로의 공통적인 과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있다. 예를 들어 로또복권기금에만 의존하는 재원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위원들 전체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활동해야 할 일로 보인다. 거기서 더 나가 국무조종실 산하의 복권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문예 쪽 기금의 안정적 배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지역 문화재단들, 민간 지원재단들, 앞으로 만들어질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각종 민간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협의와 조종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문예진흥원이 장르와 권역과 세력들 간에 안배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의 예술위원회는 위원회가 합의한 큰 틀의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창작과 향수,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창작과 비평, 국내외 해외, 중앙과 지역, 지원과 투자 등을 넘나드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통의 과제들을 위원들의 합의로 하나씩 풀어 나갈 때 예술위원회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다.